

을 높여 최종판매 시 농가가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농가의 생산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도 있다. 딸기와 토마토 농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다. 과수 : 사과, 배, 포도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과수 농가의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과수 농가는 주로 기술효율성 감소로 총효율성이 감소하였지만, 효율적 생산경계를 구성하는 선도농가의 기술효율성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선도농가와 일반 농가 사이의 기술효율성의 편차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선도농가와 일반 농가의 괴리는 ‘선택과 집중’ 정책의 결과로 사료된다. 한·칠레 FTA 이후 과수를 포함한 원예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경쟁력 있는 선도농가 육성 정책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물론 경영컨설팅지원, 우량묘목지원 등 일반 농가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선택과 집중’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생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7개 주요 항목의 비용이 상승하고, 비중이 큰 일부 항목의 비용이 급등하여 농가 배분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생산비 항목을 중심으로 한 비용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농가의 시장정보 활용과 장부 기장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소가격 및 판매가격의 변동성에 대응한 농가의 위험관리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 또한 주요 생산비 항목 중 노동비용과 토지비용 등의 상승은 경제 전반의 인건비와 지가 상승 등 개별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요인에 의한 결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규모화로 농가당 재배면적이 증가함에도 규모효율성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나 다수의 농가가 규모 확대가 필요한 규모수익증가 상태이고, 재배면적 증가가 세부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규모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노지 과수 농가의 경우 자가노력비와 고용노력비를 합산한 노동비의 비중이 사과 39.9%, 배 39.8%, 노지포도 47.8%로 높은 상황에서 노동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대농기구상각비 비율이 증가할 경우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기계화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수 농가에 인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 농가의 경우 착색봉지 사용은 비용효율성을 높이지만, 이윤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윤효율성 개선을 위한 착색봉지 개선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일곱째, 유기질 비료 증가가 포도의 순수기술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순수기술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기질 비료의 성능 개선 필요하다.

여덟째, 기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과수 농가의 효율성이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계 구입 시 농기계임대사업, 공동 구매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아홉째, 밀식수준 증가 시 노지포도는 규모효율성이 감소하였다. 적정 밀식수준을 준수하도록 현장 지도 및 농가 교육 필요하다.